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

(골 1:27)

2025년 신년사

복음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성도가 되기를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벽찬 감격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되어야 할 2025년, 세밀에 들려온 항공기 참사로 어둡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총성이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피해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국내 정치의 혼돈과 무질서는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걱정을 주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불안 요인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젊은 세대의 일자리 부족과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과 대립의 깊은 골이 분열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층, 연령, 지역, 젠더 등 수많은 이유의 나뉘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불안한 미래 앞에서 기대감보다는 걱정과 염려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2025년, 하나님은 광림의 제단에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궁극적인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갈 뿐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를 귀히 여기며 누리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삶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 즉, 작은 예수의 삶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비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긍휼함과 자비와 겸손 그리고 온유함과 인내, 다른 사람에 향한 용납과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한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복음,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비밀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됨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 그리고 도덕성이나 태도 등에 대해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한 새로운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존의 변화를 경험하며 날마다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 구원의 복음,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름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매일 새로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는 기도를 통해 이뤄집니다.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외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어야 합니다.

... 3면에 계속

믿음 안에서 영적 강자로 살아가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롬 15:1)

2025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광림의 권속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희망과 더불어 기대감이 넘쳐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주변과 정황들을 보면 희망과 기대감보다는 깊은 한숨과 더불어 불안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에 맡기며 방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 힘에는 경제적인 힘, 지식의 힘, 경험의 힘, 도덕적인 힘 등 여러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보다 가장 강력한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힘입니다. 이 힘은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있게 되며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고 겸손함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시작하며 영적인 강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믿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 이만큼 강한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환경과 여건에 휩쓸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삶, 흘러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새롭게 한 삶은 내던지고 방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라 하십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영적인 강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곧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바스타조(βαστάζω)’이며, 이 단어의 뜻은 ‘들어 올린다’입니다.

이는 마치 군대에서 행군할 때에 뒤처지는 병사들이 있는데, 그때 연약한 병사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을 ‘담당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이나 실수를 감추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격려하며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5:1-6

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	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	--	-----------------------------	----------------------------------	--	--	--

바울이 편지하는 로마 교회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교인과 신앙의 연조가 짧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래 믿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 교만에 빠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낮게 보지 말고, 연약한 자들의 부족하고 약한 점을 잘 돌보고 지도하며 도와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약한 자를 담당한다’, 곧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은 공감 능력과 더불어 포용능력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공흥함’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 능력은 연약한 자에게 공흥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흥한 마음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세워주는 사람, 곧 믿음이 강한 영적 강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입니다

본문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이웃에게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이나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웃에게 선이 되도록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일까요? 선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인데, 이는 질서가 바르며 풍성하고 부하며 아름답고 생명의 관계로 번성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말

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롭게 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질 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가 바르며, 풍성하고, 부하며, 아름답고, 생명의 관계로 번성함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이 전하여질 때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 영적인 강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하나 됨을 위하여 힘쓰는 인생입니다

본문 로마서 15장 5-6절의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 하여 주사”라는 말은 마음을 같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성장 배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달랐습니다. 그렇기에 이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됨이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5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인내와 격려함으로 하나 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인내하며 격려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을 위한 예수님, 나만의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을 만끽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자세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세우고 기쁘게 하며 하나 됨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영적 강자의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땅에 분리와 나눔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독회장 김정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 1면에 이어

더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행동으로, 인격과 성품으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요로운 삶의 능력과 은혜를 인격과 성품을 통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주적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전할 때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가 다가올 시대에 변화와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이 땅에 소망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소망

이며, 복음의 가치를 누리며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망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적로나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처럼 환난을 당한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웃을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웃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비관과 절망 그리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지만 우리의 겸손과 섬김, 사랑

과 나눔으로 인해 이 땅에 소망이 피어나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숲속에 타는 불꽃인 광림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 이 소망과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 희망의 탐에서
김정석 감독회장



2024년 광림교회 모범 속회 시상식

12월 29일, 당회·구역회에서 선교구별 14개 속회 격려



지난 12월 29일(주일)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린 저녁 예배에는 2024년을 마무리하며 당회 및 구역회가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서울남연회 유병용 감독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사 40:1~2)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수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다. 당회 및 구역회에서는 각 위원회 보고와 함께 54명의 권사와 44명의 집사 등 신천 임원이 정식으로 임명됐다. 이어서 모범 속회 시상식이 진행됐다. 각 선교구별로 선정된 총 14개의 모범 속회와 속장의 이름이 순서대로

호명되고, 김정석 감독회장이 직접 시상하며 격려했다. 1교구/48속 속장 이은희 권사, 6교구/49속 속장 감지희 권사, 9교구/33속 속장 이묘선 권사, 11교구/56속 속장 최순환 권사, 15교구/15속 속장 장점숙 권사, 16교구/35속 속장 이상민 권사, 19교구/37속 속장 김수진 집사, 22교구/4속 속장 장수미 권사, 21교구/11속 속장 김영미 권사, 29교구/40속 속장 정고운 집사, 광림남교회 51교구/61속 속장 송준섭 집사, 53교구/65속 속장 김준태 권사, 광림북교회 71교구/15속 속장 강길순 권사, 동탄광림교회

75교구/5속 속장 이선영 권사 등 14명이 수상을 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모이기에 힘쓰고,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선 속회가 모범이 되었다”면서 축하했고, 속회 식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상민 권사(16교구 35속 속장)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운 ‘힘 없는 예배’를 함께 드린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혜선 기자

포토 뉴스



2025년 시무예배
1월 2일(목) 광림의 교역자들과 직원이 함께 모여 새해 시무예배를 드렸다.



실업인선교회, 감사 선물 전달
12월 28일(토) 실업인선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한 교역자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했다.



광림 사이닝키즈 원아 모집
광림교회 유치교육기관인 사이닝키즈에서 신입생과 원아를 모집하고 있으며 통원버스도 운행한다.

감독회장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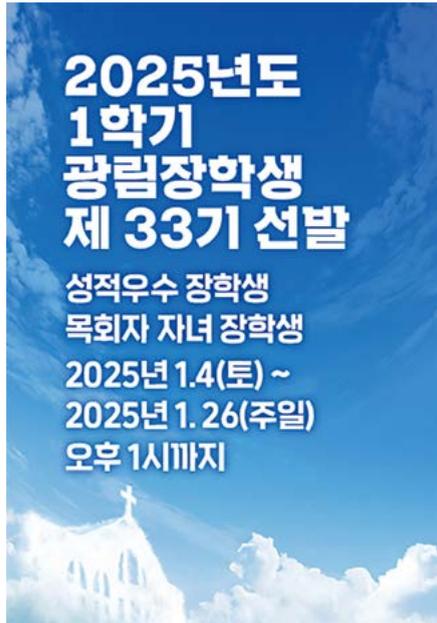


- 12/31 송구영신예배
- 1/2 시무예배
- 베다니교회 신년성회
- 1/5 신년주일
- 1/7~8 임원전지훈련 1차(집사)
- 1/12 청지기주일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하나님 나라 청년 인재들을 세우는 광림장학생 선발

<1만원 장학 후원> 통해 광림교인 누구나 참여 가능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청년 인재들을 세우는 2025년 1학기 성적 우수 광림장학생과 목회자 자녀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광림장학위원회(위원장 최동호 장로)는 1998년부터 매년 2회, 광림교회 출석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한 학기에 150만 원, 목회자 자녀에게는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성적 우수 광림장학생은 대학교 1학년 1학기 이상을 마친 학생으로 지난 학기 성적 평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신앙심이 뛰어나고 모범적인 학생이 대상이다.

광림교회 홈페이지(klmc.church)에 있는 서류들을 작성한 후 선교구 전도사와 목사에게 장학금 신청을 알려야 한다. 교구 전도사는 추천서에 지원자 및 부모의 신앙생활 정

도 및 교회 봉사 기여도, 가정 형편 등을 자세히 기록한 후 선교구 목사의 서명을 받아 목회행정기획실로 1월 26일(주일) 오후 1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목회자 자녀 장학생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농어촌교회 및 미자립교회 대학생에 한하며 청년선교국 추천 1명, 교육국 추천 1명, 신학대학교 대학원생 1명을 포함하여 선발한다. 각종 서류와 자세한 안내 사항은 광림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며 1월 24일(금) 오후 1시까지 목회행정기획실로 제출해야 한다.

장학생 신청 지원서, 자기 신앙 소개서, 목회자 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2월 19일(금) 광림교회 홈페이지에 최종 선발

된 제33기 장학생 명단이 발표되며, 축하예배 및 수여식은 3월 9일(주일) 오후 7시 30분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열린다.

광림 장학위원회는 연간 100명 정도의 대학생들에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장학금 수여자들의 멘토가 되어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다.

광림교인들은 <1만원 장학 후원>, <개인 명의 기념 장학금>, <기업 장학헌금> 등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장학위원회 박상희 권사
(010-5351-2640)

유병권 기자

2025 임원전지훈련

한 해 교회 비전과 목회 방침 설명, 임원들 헌신 다짐하는 시간 가져

2025년 광림교회 집사를 대상으로 한 1차 임원전지훈련이 지난 1월 8일(수)부터 1월 9일(목)까지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본당과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의 임원들이 참석해 은혜를 나눴다.

매년 연초에 실시되는 임원전지훈련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 비전과 1년 목회 방침을 설명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헌신을 다짐받는 귀중한 시간이다.

1차 훈련 첫째 날에는 이천중앙교회 담임목사이자 중앙연회 12대 감독인 김종필 감독

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눅 24:49)라는 말씀을 전했다. 김 감독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를 믿기 위해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이해될 때까지 직분을 받은 임원으로서 기도와 찬양, 예배와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첫째 날 훈련을 마쳤다.

둘째 날 김정석 감독회장은 2025년 광림교회 표어인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

며 전하는 교회”(골 1:27)를 선포하며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에 대해 전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광림교회의 임원들이 올 한 해를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거룩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감사가 일상이 되기를,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를 특별히 당부했다.

이어 마지막 순서인 성찬 예식이 거행되었다. 임원들은 경건하게 주님을 목상하며 성찬식에 참여했고, 올 한 해도 주신 선교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임원전지훈련은 1월 15일(수)부터 1월 16일(목)이며, 첫째 날에는 브니엘교회 담임목사이자 서울남연회 18대 감독인 유병용 감독, 둘째 날에는 김정석 감독회장의 말씀으로 이틀간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은혜로운 임원전지훈련을 위해 교회학교는 사회봉사관 3층(미취학)과 4층(취학)에서 자녀를 위한 아이 돌봄 데이케어를 운영한다.

박희윤 기자



청년부

2025년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다

LFC 청년선교국 임원전지훈련



2025년 1월 4일, LFC 청년선교국은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실에서 임원전지훈련을 진행했다. 올해의 훈련은 'Auxano : 성장과 확장'을 주제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더욱 확립하고, 청년선교국의 비전을 실현할 준비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훈련은 개회예배로 시작되었으며, 목회 시스템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훈련에 참석한 청년선교국 임원들은 교회의 목회적 가치와 사역 방향을 이해하고, 2025년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기반을 다졌다.

또한, 목회 점검 시간을 통해 LFC 청년선교국은 지난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고, 올해의 구체적인 사역 계획을 수립했다.

교회의 질적인 성숙과 양적인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료인 속회를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공동체에 정착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하며 함께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 활동에도 동참함으로써 공동체의 확장을 이루어 가는 비전과 계획을 함께 나누었다.

일정 사이사이에 진행된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훈련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번 훈련에 모인 청년선교국 임원들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교구별로 팀워크와 리더십을 익히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합심기도회에서는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2025년 목표와 비전을 기도로 다짐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사역에 대한 결단을 새롭게 했다. 기도와 나눔을 통해 서

로를 위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이 되었다.

임원전지훈련에 참여한 권소리 청년은 "작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심에 감사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고, 올 한 해 목회 철학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기대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청년부에 대해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전하며 훈련의 의미와 기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2025년 LFC 청년선교국의 목회 전략은 'Auxano : 성장과 확장'이다. '1,000명의 재직 인원, 700명의 예배자, 400명의 제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속회 활성화(Activate), 속회 연

합(Unite), 속회 확장(Expand), 속회 성장(Nurture), 속회 전진(Advance), 속회 확장(Multiply), 속회 선교(Overflow)의 7가지 전략을 통해 이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도 LFC 청년선교국은 더욱 부흥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이번 훈련은 Auxano 전략을 실천할 리더십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2025년 목회 전략을 통해, LFC 청년선교국이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전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임원전지훈련을 은혜롭게 마쳤다.

김세열 전도사(청년부)

2025년 대심방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린 접시



광림교회 목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심방 목회다. 심방의 의미는 기억, 관심, 관계, 배움이다. 심방은 목자가 양을 기억하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듯, 서로가 기억하고 찾아아가는 것이며, 성도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나 신앙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또 심방을 통해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것이다.

심방 중에서도 특히 '대심방'은 1년에 한번 온 가족이 함께 심방 받는 것을 말한다. 광림교회는 매년 선교구별로 대심방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심방 선물도 전하고 있다.

1979년 시작된 대심방 선물에 대해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는 "2025년 심방 선물

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 접시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 애즈베리신학교 채플 제단에 있는 스테인드글라스입니다. 깃세마네 동산에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고뇌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양 옆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라고 하며, "올해 표어인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골 1:27)에는 우리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 담겨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려진 접시를 보며 우리의 삶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전했다.

백명순 기자

목회현장

왜 일본 야마가타 현이 새해 세뱃돈을 가장 적게 받을까?



최근 일본의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새해를 맞아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새해 세뱃돈을 받는 금액을 조사했는데, 제일 적게 받는 지역이 야마가타 현이었습니다. 제작진은 그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 야마가타현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른들은 세뱃돈을 받는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길까봐, 즉 교육적인 측면에서 세뱃돈을 많이 줄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세뱃돈을 받는 아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는데 야마가타 사람들이 구두쇠이기 때문이라고, 또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적 특성상 사고방식 또한 폐쇄적이라 새로운 걸 따라가지 못해서, 즉 야마가타 사람들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의 인터뷰를 보며 깔깔깔 웃었지만, 솔직한 아이들의 인터뷰가 꽤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광림교회는 바로 이 야마가타 현,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이곳 사람들은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 사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인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부단히

애쓰고 있지만 지난 한 해 일본인 성도 1명만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겨우 1명이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의 체감은 100명이 세례 받은 것만 같은 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 간절하게 기도한 그 결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실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 야마가타 광림교회는 일본인 구원 사역에 진심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성도들의 남편과 자녀,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우리 교회는 일본어 동시통역실 부스를 만들었고, 동시통역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서울 본당 동시통역위원회에서도 이종국 팀장님을 중심으로 매주일 예배를 일본어로 통역해 섬겨 주고 계십니다. 이 글을 통해 일본

어 동시통역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한식 문화교류 행사와 같은 지역 행사에도 매년 참여하고 있고, 교회의 문턱을 더 낮추고자 올해부터는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 장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일본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많은 일들을 기도하며 진행할 것입니다.

이 모든 현지 사역을 위해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야마가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열려지기를, 그래서 아이들은 풍성한 세뱃돈을 받고, 더 많은 일본인들이 구원받아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신우 목사(야마가타 광림교회)

광림남교회

복음의 풍성함을 전하다 '사랑의 온기 전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엡 5:2) 광림남교회 청년부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용인시 취약계층 31가정을 위한 '사랑의 온기 전달'이라는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랑의 온기 전달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추운 겨울 동안에 연탄을 사용하고 계신 독거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형편인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따뜻한 이불과 쌀'을 준비해 전해드리려는 행사로 계획되었습니다.

12월 22일(주일) 낮 12시 30분, 광림남교회 예수와카페 앞에서 '사랑의 온기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달식에서는 광림남교회의 성도들과 청년들이 모여, 예수님의 사랑이 용인시 취약계층을 비롯한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기도했습니다.

선영진 목사(교육청년부)는 전달식에서 “우리 광림남교회가 속한 용인시의 취약계층 31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이 귀한 사역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신 성도님들과 대림절 기간 동안에 최고의 헌신으로 애

쓴 청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전하며,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에게 기증서를 전달했습니다.

12월 24일(화)에는 광림남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준비된 500만 원 상당의 쌀, 이불 세트와 헌물해 주신 머플러, 쌀 등을 패키징하였고, 용인시 취약계층 31가정에 직접 방문하며 전달하였습니다.

광림남교회 청년부 선교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준수 성도는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받으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셨기를 바란다”라며 소감을 전했고,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한 청년은 “한쪽 다리가 없는 한 어르신이 차가운 바닥에서 생활하시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고, 그 분을 위해 기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광림남교회 청년부는 앞으로도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복음의 풍성함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 김현진 전도사(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감사와 찬양, 한마음으로 마무리한 2024년



2024년의 마지막 해가 서산을 넘기고 희망찬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습니다.

광림북교회는 지난 일 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는 북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성탄 감사 음악예배'가 지난 12월 15일 주일 저녁 예배 시 있었습니다. 2부 브니엘성가대와 3부 시온성가대가 연합하여, 준비한 성탄 칸타타 5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찬양의 시간은 지난 6년 동안 광림북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정환명 권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광림북교회를 지금까지 부흥 성장케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감사음악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12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에는 교회학교 주관 '성탄축하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축하발표회는 교회학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 세대까지 함께 참여하는 전 세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들부터, 아동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순서 하나하나가 광림북교회의 열매로 고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몽골어 예배 공동체에서도 한 순서를 맡아주셨는데, 쉽게 접할 수 없는 몽골 전통춤과 몽골 여성 청년들로 구성된 댄스팀의 워십댄스를 통해 글로벌 축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세대의 색소폰 연주가 있었고, 웨슬레 선교회 부부 찬양단의 특송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경품추첨 시간을 가지며,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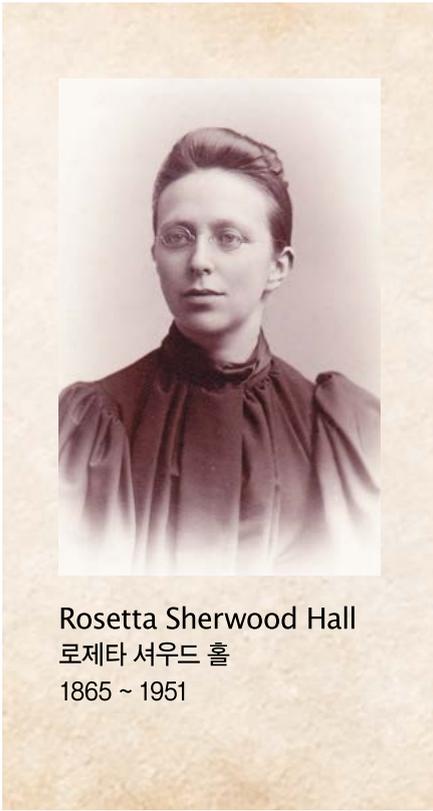
광림북교회는 지난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와 은혜의 씨앗을 간직하고, 2025년에는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길 소망하며 더욱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 김우진 목사(광림북교회)

한국감리교회를
빛낸 해외선교사 23

홀 가족의 이야기 2 - 로제타 셔우드 홀

“죽음도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습니다”



1894년 11월 24일, 조선에서의 윌리엄 홀의 사역은 죽음으로 마쳐졌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남아있던 그의 가족과 함께 계속되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 로제타 셔우드 홀의 이야기는 당시 여성 선교사로서의 한계를 뛰어넘고 조선 사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킨 감동의 여정입니다.

로제타 홀은 1865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1889년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감리회 여성 해외선교회(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에 의해 1890년 조선으로 파송 받았습니다. 조선으로 파송된 후 맡은 첫 사역은 조선 최초의 근대식 여성병원인 '보구녀관'의 원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구녀관 이외에도 여성 전문 치료 시설인 광혜여원을 개원하였고, 1894년 국내 첫 시각장애인 학교인 평양여명학교를 설립한 후 한글 기반의 점자를 개발하였습니다. 한편, 로제타 홀은 남편의 죽음 이후 고국으로 잠시 돌아와 조선을 위한 선교 자금을 모금하여 1897년 한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땅에 돌아와 1년이 채 되지 않고 전에 둘째 딸 에디스를 이질병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시각장애는 사회적 낙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유 있는 집안 출신의 맹아만 안마사나 무당 같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대부분은 학대를 받다가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죽어가던 시대였습니다. 로제타 홀은 이러한 사회환경을 장애인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점자로 성경을 가르치고, 맹학교 조수와 점자제작, 사진관 보조 등의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쇄술, 뜨개질, 재봉술과 수선법, 요리, 세탁, 다리미질과 바구니 제작 등 맹인들에게 교육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일 년에 몇 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

니라, 몸을 치료하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을 만나게 하려고 온 것이다"(1891년 3월 7일)

격동기 조선의 현실을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사랑과 나눔의 인술을 통해 많은 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그녀의 헌신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구녀관(普救女館)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여성병원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이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주차 안내, 교회 질서 유지 등 교회 지킴이 사명 감당

기드온선교회 - 최제한 장로



기드온은 구약시대 사람으로 처음에는 겁이 많고 연약하였으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많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용맹스런 사사가 되었다.

기드온선교회(위원장 최제한 장로)는 이러한 기드온의 강직함을 본받아 단순히 주차 안내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 유지, 목회자들의 안전과 대외 홍보 등의 일도 한다. 기드온선교회 창설 초기부터 활동을 해온 최제한 장로를 만났다.

기드온선교회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봉사하게 되었는지요?

1995년부터 주차 봉사를 시작했는데, 많은 차량들이 입차, 출차하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20여 명이 봉사를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나 감사가 있다면?

김선도 감독님을 생전에 가까이서 수행했던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시 84:10)라는 말씀처럼 교회 지킴이로 지금까지 봉사했던 일에서 보람과 감사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장으로서 많은 일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서로 연합해야 하고 또 기드온선교회의 안전과 교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중보기도팀을 창설, 남자 성도 10명, 여자 성도 10명, 봉사자 40명 총 60명이 헌신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3회 광림수도원 등 교회 시설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사랑의 교제와 함께 회원들 간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주차 안내 시 성도들에게 권할 말은?

주일 3부 예배 때 사회봉사관 공연장에 일찍 오는 관객들이 많아서 복잡할 때가 많으며, 예배 시간에 일찍 도착한 차량은 지하 4층, 5층까지 내려보내고 늦게 온 차량이 지하 1,2층에 주차할 때도 있습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 어쩔 수 없을 때도 많기 때문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봉사자들이 하는 지시에 따라 주는 것이 광림교회의

성숙한 교인들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위원장으로서의 소망은?

현재 봉사자들보다 10여 명 많은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서 함께 봉사할 회원들을 환영하며,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 문의 : 김영기 총무 (010-3529-9736)

이득섭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4



대홍수 심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창 7:1)

하나님으로부터 예언 받은 일곱째 날 저녁이 되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배에 오른 후 다리를 올리고 문을 닫았다. 그러자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40일 동안 폭우로 변하여 계속 땅 위로 쏟아부었다. 모든 땅은 대홍수로 범람하여 모든 사람과 동물들은 멸절(滅絶)되었고,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함께 탄 동물들은 살아남았다.

그렇게 40일이 지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비가 그친 후, 노아는 물이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까마귀를 날려 보냈지만 돌아왔고, 이어 비둘기를 날려 보냈지만 되돌아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비둘기를 날려 보냈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올리브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왔다. 노아는 곧 물이 빠져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방주 밑 바닥이 갑자기 무엇인가에 부딪혔다. 노아는 방주가 땅에 닿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땅은 산꼭대기였으며, 그곳은 아르메니아 평원에 있는 아라라트(Ararat) 산꼭대기였다고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다.

다음 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감사의 제물로 바쳤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 노아를 조롱하는 함_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를 희롱하는 장면이다. 함이 저지른 잘못으로 그의 자손 가나안은 '다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노아의 저주를 받았다. 반면 셈과 야벳에게는 큰 축복을 내렸다. 이후 함의 자손인 블레셋, 헷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끊임 없이 대적하였다. 시모네 브렌타나 작품



▲ 대홍수 심판_ 노아를 비웃으며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 대홍수로 죽어가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뎀베르겔 작품



노아와 세 아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창 9:25)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의 징표로 하늘에 커다란 무지개를 띄워 주어 주위가 밝아졌다.

대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들은 각각 농부와 양치기가 되어 각각의 자녀들과 가족을 키우며 평화롭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포도 농사를 지은 노아는 아주 좋은 포도로 빚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잠들었다. 이 모습을 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생식기를 보고 조롱하며 그 사실을 두 형제에게도 알렸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와서 어깨에 걸친 후에 뒷걸음질로 노아의 장막에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다. 그들은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았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는 몹시 화가 나서 함을 꾸짖어 쫓아냈다. 아버지로 부터 쫓겨난 함은 가나안(Canaan, 현재 이

스라엘과 그 주변이 가나안 지역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기 전의 원주민들을 가나안족이라 부름)의 조상이 되었다.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의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이 저주는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홍수 후에 노아는 삼백오십 년을 살았고, 구백오십 세가 되어 죽었다. 노아 이후로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일을 또다시 행하였다.

특히 함의 후손인 니므롯(Nimrod)은 이 땅에서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세운 사람으로, 잔혹한 전제왕이었으며 하나님께 대적하였다.

◀ 방주에서 나온 노아_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으로, 하나님은 무지개로 세상과 언약의 증거를 두셨다.

도메니코 모렐리 작품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광림 뉴스레터

